
정책참고자료

2017-23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극복, 이렇게 -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 개최 -	4
--	---

2 국민권익위원회

강원 삼척 하정교차로 일대 교통안전시설 보강될 듯 -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관계자 간 합의 -	9
--	---

3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경영위기, 실패 이후 단계별로 전주기 재도전 지원 - 「2017 재도전의 날」 행사, 12.1.(금) 코엑스 -	12
---	----

4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으로 심층실태 파악 및 맞춤형 학교폭력 정책 지원	17
--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24
----------------------------	----

6 문화체육관광부

수호랑, 반다비와 함께하는 전통문화관광 특별공연과 평창 동계 올림픽 홍보 행사 실시 - 2017. 12. 8.~12. 17. 인천국제공항 입·출국장 일원 -	29
---	----

7 농림축산식품부

‘미래 농업기술을 한 눈에, 「2017생명산업과학기술 대전」 개최 - 12월 5일(화)부터 7일(목)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 -	32
---	----

8 환경부

국민 89.9% “1회용품 보증금제도 도입 필요” _____ 38

9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룬다!

- 노사발전재단, 사업주단체 회원사 대상 ‘근로시간 유연화 및 단축제도 인식조사’결과 발표- _____ 42

10 여성가족부

뽀로로와 함께 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 ‘뽀로로와 친구들’ 캐릭터를 활용한 유아용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 - _____ 47

11 국토교통부

노후주택 재건축 통한 대학생·어르신 임대주택 첫 공급 _____ 50

12 해양수산부

해수부, 해양플랜트 서비스시장 진출 교두보 놓다

- 타당성조사 지원사업(15~17) 통해 156억 원 수주 성과 올려... 6일 시장설명회서 소개 - _____ 54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극복, 이렇게

-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발굴·공유하는 「201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 이번 대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가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지자체의 우수 시책을 발굴·확산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이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은 경기도의 '함께 키우는 우리 경기, 경기도 인구정책 거버넌스 만들기'와 충북 청주시의 '가족친화 지역사회 UCC 네트워크'가 선정되었다.
 - 경기도는 전국 최초 인구정책조정회의를 운영하고, 인구영향평가를 설계하는 등 도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인구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 충북 청주시는 대학(University), 기업(Company)과 함께하는 UCC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경진대회에 진출한 총 13건의 우수시책은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7건이 선정됐다. 해당 지자체에는 특교세 총 10억원이 지원된다.

< 시상내역 >

구 분	계	최우수 (대통령 표창)	우수 (국무총리 표창)	장려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시도	3	1.6억 (1.6억)	0.8억 (0.8억)	0.5억 (0.5억)
시·군·구	10	1.6억 (1.6억)	2.4억 (각 0.8억)	3.1억 (각 0.5억)

- 한편, 경진대회에는 243개 지자체 중 시도 추천을 거쳐 선정된 78건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13건의 우수시책이 선정됐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최종순위를 가리게 되었다.
- 심사에는 전문가 4명과 시민단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약 50여명의 현장평가단이 심사에 참여하여 우수시책 발표를 듣고, 현장에서 실시간 투표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을 높였다.
- 이 외에도 우수시책 경진대회에는 다양한 공연과 퍼포먼스가 더해져 의미를 더했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자치단체의 남성 수상자들, ‘(사)함께하는 아버지들’이 함께 여성 중심의 독박육아를 타파하고, 아빠의 육아참여를 독려하는 공연을 가졌다.
- 또한, 경기도·부천시가 공동 제작한 창작 뮤지컬 “아이슬란드”의 초연을 통해 저출산 극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주민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저출산 극복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시·도 】

세종시	우리집 근거리 원스톱 돌봄서비스, 세종시와 함께!	우수
<p>○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스톱 돌봄기반 조성) 마을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주민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역협의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육아나눔터, 돌봄센터 등 걸어서 10분거리에 아이돌봄이 가능한 환경 조성 - (주민 중심의 출산정책 지원) 젊은 유입 인구의 결혼, 임신, 출산, 산후조리지원, 돌봄, 육아, 보육 등 적극적 출산정책 지원 • 행복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행복출산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지역돌봄과 마을육아 공동체 지원(아파트별 커뮤니티센터와 협력을 통해 돌봄공간 조성, 공동육아 나눔터 7개소 등 조성) • 생애주기별 틈새없는 출산정책 추진 :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15년부터 총21회), 가정방문 산후조리지원 사업(수혜자 1,320명) 등 		

경기도	“함께 키우는 우리 경기” 경기도 인구정책 거버넌스 만들기	최우수
<p>○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최초 『인구정책조정회의』 운영 : 인구정책 관련안건 토의 및 인구영향평가, 인구정책평가지표, 일자리·저출산 SIB사업 신규 정책사업 발굴 • 시·도 중 최초로 인구영향평가 설계 : 인구관점의 정책타당성 평가 및 미래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사전 인구영향평가 모델 개발 및 법제화 추진 • 인구정책 5개년계획 수립 : 경기도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 등 도정 전반에 걸친 인구정책 마스터플랜 마련(‘18.2월 완료 예정) • 전국 최초 인구정책 평가지표 개발 : 도 전체 사업에 대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흐름에 따른 평가지표 개발 • 일자리·저출산 SIB 사업(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여성 고용률 유지를 목표로 일자리·저출산 SIB 사업모델 설계 • 전국 최초 저출산 인식개선 뮤지컬 제작 :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공연으로 청소년들의 결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유도 		

【 시·군·구 】

서울 강동구	다자녀가정 - 기업(단체) WIN - WIN 프로젝트추진	우수
<p>○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정과 기업체(단체) 간 결연을 통해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과 관심 증진, 기업의 사회공헌 연계 - 방문, 전화통화 등을 통해 기업·단체 모집, 전문가 자문을 통한 결연방식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연기간 : 1년(최장 3년) • 결연대상 : 넷째 이상 가정 • 지원금액 : 월 10만원, 연 120만원(최장 3년 360만원) • 2010년부터 현재까지 75개 기업(단체) 및 213개 가정, 615백만원 지원 		

충북 청주시	가족친화 지역사회 UCC 네트워크	최우수
<p>○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iversity(대학)-City(청주시)-Company(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구성원별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역할 분담, 연계 - 8개 대학, 27개 기업, 5개 단체 등 참여 - 출산 후 재취업제도 마련 등 기업참여 적극 유도, 실무자 워크숍, 소식지 발행 등 저출산 문제인식 공유·공론화 및 가족친화 제도 발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University) 결혼·출산, 양성평등 관련 교양과목 개설 및 확대 • (청주시: City) 찾아가는 인구정책 설명회, UCC네트워크 협약 체결 등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등 가족친화제도 지원 • (기업·단체: Company) 기관별 실정에 따른 가족친화제도 발굴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자 2017년 전원 복귀(명정보기술), 가족사랑의 날 확대(LS 산전 등), 일·가정 양립 캠페인 추진(충북대병원) 등 		

전북 남원시	출산돌봄 지역거점형 네트워크 구축	우수
<p>○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지리산 인접 시군은 인구가 적고 안정적 수익구조가 유지되지 않아 민간 산부인과 설치 불가능, 농촌지역의 돌봄·육아 인프라 전무 - (개선) 남원·임실·순창 출산지원담당, 산부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역협의체 구성, MOU 체결, 돌봄의 사회화 추진 <p>< 임신·출산 지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산권 산모보건 의료센터) 산부인과 전문의 보강으로 24시간 분만 의료서비스 제공 • (방문 산후조리 지원) 출산8주 이내 기간동안 전체 산모 대상 지원(남원시 가정) <p>< 돌봄의 사회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싹보듬이 사업) 57개소 어린이집에 172명 노인을 파견하여 아이돌봄 지원 • (마을공동체 희망씨앗 운영) 농촌지역 마을의 작은도서관 연장운영, 학습독서지도 등을 통해 공동체 돌봄 지원 		



전북 부안군	우리아이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우수
<p>○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산모와 아기를 위한 지원 및 출산 축하 분위기 조성 • 군민과 공감하는 저출산 인식개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드림 아카데미 교육, 행복 보육 콘서트(내 아이와 연애하라), 찾아가는 공공기관 인구교육 등 • 부안군 거주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전 진찰(1회 4만원 4회까지 지원), 분만이송(1회 10만원) • 부안아이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지역기관, 단체, 개인 등의 공동 참여로 장학기금 확보(127억원 중 군 출연금 91억원, 민간기탁 36억원, 소액다수 정기회원 6,110명) - 장학금 지급 : 1,196명, 14억원('06~'17) 		

강원 삼척 하정교차로 일대 교통안전시설 보강될 듯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관계자 간 합의 중재

- 강원도 삼척 하정교차로 일대 교통안전시설이 보강되고 입체교차로 변경설치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 강원 삼척시 미로면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인근 주민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삼척시 미로면 하정리에 신설된 하정교차로는 터널에 인접해 있고 내리막 구간과 곡선 구간에 위치해 사망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또 옛 국도 노선에 있던 하정마을 진출입로는 도로에서 유턴으로 진입하는 기형적인 통행방식으로 인해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불편을 겪고 있었다.

- 그러나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정선국토관리사무소는 하정교차로 전후에 상정교와 하정교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하정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변경하려면 인접 교차로까지 철거해야 되고 산림 훼손 등 경제성 및 환경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이에 주민들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간 수 차례 회의와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강원 삼척시 미로면사무소에서 주민과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삼척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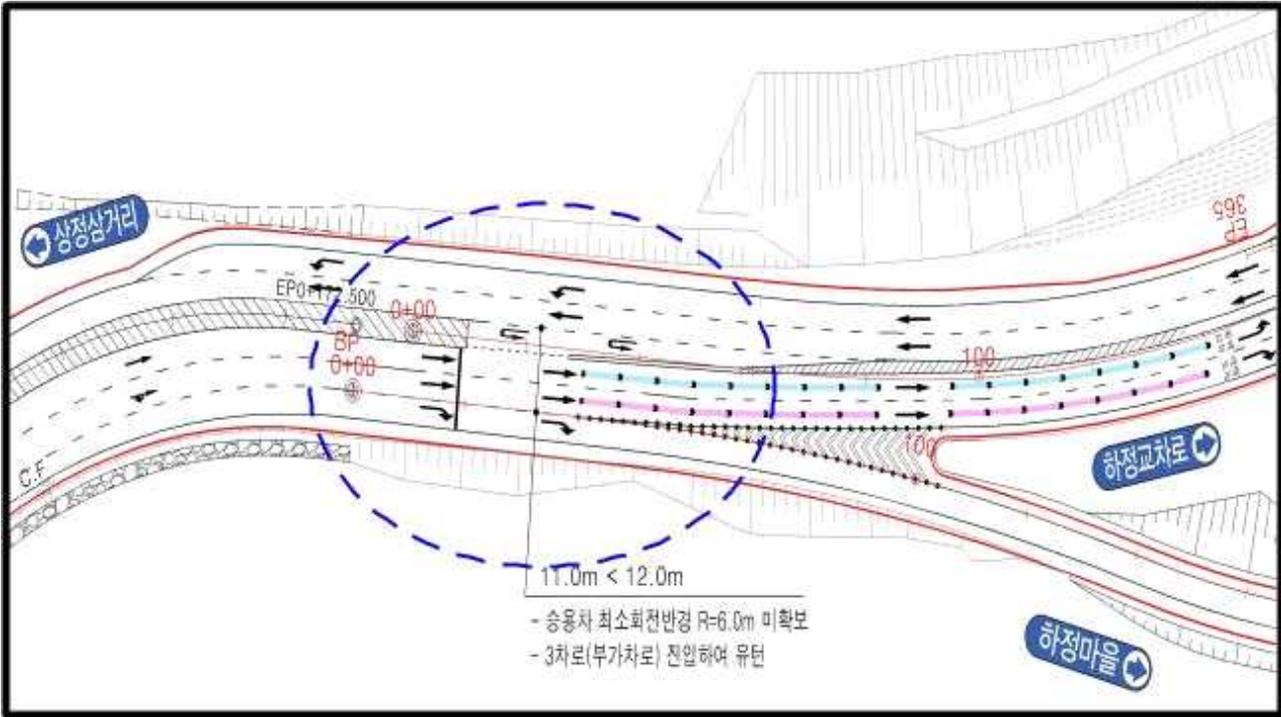
이날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은 하정교차로의 교통안전시설 보강, 도로 기하구조 개선, 입체교차로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국도병목지점개선사업 등 개선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하정마을 진출입로 통행 개선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도 계획키로 했다.

삼척경찰서장은 현재 하정교차로에 설치된 과속단속 무인카메라를 다기능무인단속기(과속·신호위반)로 변경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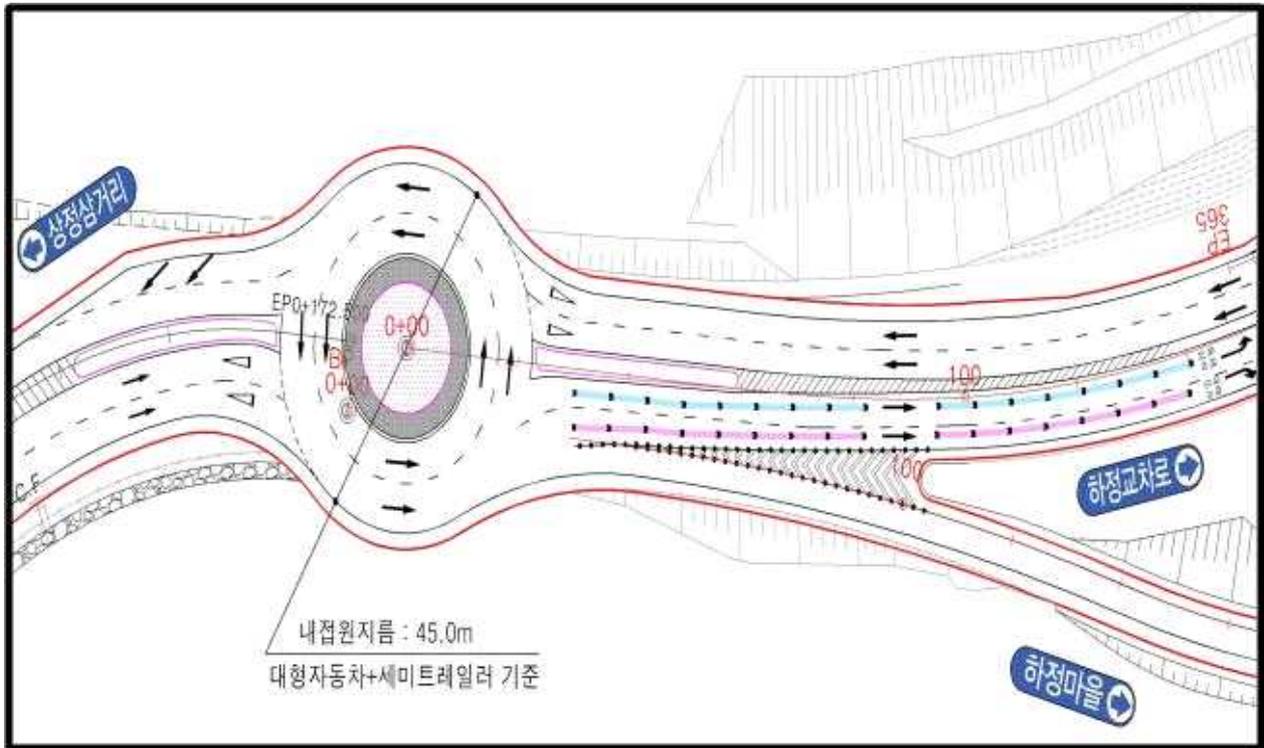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원 지점 1, 2 현황(○하정교차로, □ 하정마을 진출입로)



민원지점2 현황(하정마을 진출입로)



민원지점2 개선 계획(하정마을 진출입로)

창업, 경영위기, 실패 이후 단계별로 전주기 재도전 지원

- 「2017 재도전의 날」 행사, 12.1.(금) 코엑스 -

- □ 중소기업부(장관 홍종학)는 '벤처창업페스티벌'과 연계하여, 12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7 재도전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제4회 재도전의 날 행사개요>

- ◆ (일시·장소) 17.12.1(금) 13:30~17:30, 코엑스 C홀 메인무대
- ◆ (주요 참석자) 최수규 중기부 차관, 강시우 창진원장,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 등
- ◆ (주요행사) 포상(공모전·유공자), 실패사례 발표, 특강, 토크콘서트, 전시회 등(별첨)

- 이 자리에서 최수규 중소기업부 차관은, 중기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여 창업 및 성장 단계부터 경영위기 단계, 실패 후 재창업 단계에 걸쳐 재도전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부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창업 7년 내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으며,
- 성장 단계의 기업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책임경영심사제도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여 정책금융의 연대보증폐지를 확실히 마무리하겠다고 최수규 차관은 강조하였다.
- 또한 경쟁력이 있으나 경영위기에 닥친 기업에 대해, 중기부는 금융감독원과 지난 11월3일 업무협약을 맺었고 구조개선전용자금, 구조개선 컨설팅 등을 통해 공동으로 재도약을 지원할 예정이며,

- 중소기업의 회생지원을 위한 지방법원들과의 업무협약(11월 현재 12개 법원)을 내년까지 전국 모든 지방법원으로 확대(2개 추가)함으로써 회생지원을 위한 전국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폐업한 기업인이 재창업을 할 때,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이라도 실패의 낙인이라는 이유로 일반 은행에서는 자금을 조달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1천억원), 신·기보의 재기보증지원 등 현재 재창업자가 이용 가능한 자금 조달과 더불어, 내년부터는 3,125억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를 통해 혁신형 재창업기업에 집중투자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실패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기업인 등 유공자(별첨)에 대한 시상이 있었고, 실패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 수상자의 사례발표, 토크콘서트, 재기 성공기업의 혁신제품 전시 등이 진행되었다.
 - 실패를 극복한 재창업 기업인으로는 (주)윈드애프의 하성우 대표, (주)한농환경의 백용기 대표, 넥서스텍의 김완수 대표가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 재창업자 육성에 기여한 재창업 기반조성 유공자로는 신용보증기금의 곽영남 팀장, 신용회복위원회의 한창복 부장, 안병희회계사무소의 안병희 대표가 중기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아울러, 제5회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 우수작품 시상식에서는 생생한 혁신적 실패이야기를 담은 15명을 수상(대상, 중기부장관 2점 등)하고, 성공사례 발표회를 진행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패에 관대한 문화가 정착되고 실패경험의 자산이 축적되도록, 앞으로도 국민적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별첨1

「재도전의 날」 개요

- **(목적)** 창업활성화를 위한 도전적 분위기 및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재도전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재도전의 날' 개최
- **(일시·장소)** 2017.12. 1. (금), COEX C Hall 메인무대
 - * 2017년 벤처창업대전('17.11.30 ~ 12.2)의 부대행사로 진행
- **(참석대상)** 재기중소기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및 예비창업자 등
 - * 주요인사 : 중기부 차관, 창진원장, 중진공 이사장, 신보 이사장, 기보 이사장 등
- **(주요내용)** 재도전 비전선포식 및 재창업 유공자·공모전 수상자 시상 등 1부와 명견만리 특강 및 실패 사례 발표를 2부로 진행
 - **(1부)** 재도전 비전선포식, 재창업 활성화 유공자 및 혁신적 실패 사례 공모전 시상*, 실패·재도전 릴레이 발표
 - * 시상규모(총 30점) : 유공자(15점), 공모전(15점)
 - **(2부)** 명견만리 특강*, 실패사례 발표, 재도전 토크콘서트
 - * 실패 관용 및 재도전을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명사 특강

< 프로그램 및 일정 (안) >

시간		프로그램	비고	
1부	13:30~13:31	1'	개회	사회자
	13:31~13:38	7'	비전 선포식	-
	13:38~13:40	2'	내빈 소개	사회자
	13:40~13:45	5'	환영사	중기부 차관
	13:45~14:00	15'	유공자·공모전 시상식	내빈
	14:00~15:00	60'	재도전 릴레이 발표	공모전 수상자(대상, 우수상)
	15:00~15:10	10'	휴식 공연	
2부	15:10~15:50	40'	명견만리 특강	-
	15:50~16:50	60'	실패사례 발표	재도전 기업인 3명
	16:50~17:30	40'	재도전 토크콘서트	사회자 및 재도전 기업인

* 사회자 : 문소리 아나운서, 신영일 아나운서

성명	발표주제 및 주요이력	재도전 스토리
 <p>박정규 대표</p>	<p><실패(Fail) = 기적의 sign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 : 로보프린트 ○ 주요제품 : 아트봇 * 벽면에 이미지를 프린팅하는 로봇 ○ 매출 : 10억원 ('16) ○ 고용 : 13명 ○ 기타사항 <p>- '2018 평창올림픽 로봇 지원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이 없어 88년 입학해서 2004년에 졸업 ○ '99년 호프집을 시작으로 대형식당, 주유소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으나 혼자 관리할 수 없어 맡긴 직원에게 배신을 당하고 한달에 빚 이자만 400만원씩 상환 ○ 이후 10년동안 빨간딱지가 3번이나 붙는 상황을 맞기도 했으나, 세계 최초로 벽면 프린팅 로봇 개발 완료
 <p>박현호 대표</p>	<p><아마추어리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 : (주)크몽 ○ 주요제품 : 크몽 (재능기부 플랫폼) ○ 매출 : 25억원 ○ 고용 : 35명 ○ 기타사항 <p>- 30억원 후속투자 유치(알투스벤처스) - 누적 거래금액 200억 돌파 - B2B 중개분야 1위(랭키닷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살에 친구들과 재미삼아 온라인 게임 쇼핑몰을 창업하고 엔젤로부터 5억원 투자를 받았으나 인터넷 쇼핑몰이 급격히 생겨나면서 경쟁에 밀려 첫 번째 실패 ○ 2005년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개설했으나 중국 사용자들의 사기 거래가 급증하여 신뢰도 추락으로 인해 폐업 ○ 미국의 직거래 웹사이트를 벤치마킹하여 창업하였으나 경쟁업체들의 신고로 사이트가 차단되었고 나이 서른 셋, 신용불량자라는 타이틀과 1억원의 빚만 남기고 실패 ○ 지리산 은둔생활 중 우연히 본 외국 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모든 재능을 5천원에 거래하는 크몽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중
 <p>박성민 대표</p>	<p><집닥, 재도전 스토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 : 집닥(주) ('15년 설립) ○ 주요제품 : 집닥 *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 매출 : 30억원 ('17.10월) ○ 고용 : 65명 ○ 기타사항 <p>- 50억 기관투자 유치 (알투스벤처스, 카카오인베스트먼스, 캡스톤파트너스, KDB산업은행) - 대한민국 창업리그 지역예선 (서울권) 대상 수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대에 인테리어 역경매 서비스 "하우스아이"를 창업하고 이후 건설시행사를 차려 이름을 날렸으나 땅값만 300억원에 이르는 실버타운 건설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며 한순간에 신용불량자로 추락 ○ 소셜커머스, 모바일 순번대기시스템, 맛집 딜리버리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서비스에 잇따라 도전했으나 번번히 실패 ○ 2014년 맛집 딜리버리 '아빠컴퍼니'를 설립하고 인테리어 사업에 연달아 도전하여 현재의 '집닥'을 창업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으로 심층실태 파악 및 맞춤형 학교폭력 정책 지원

- 연 2회 전수조사를 '전수조사 + 표본조사'로 개편
- 학생의 발달단계 및 인식수준에 따라 초·중등용 문항 분리
- 사이버 폭력 반영, 사이버 상과 실제경험을 구분한 문항 개발
- 조사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개별조사 참여 환경 조성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0.8%(28천명),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

-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2월 6일(수), 변화된 학교폭력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여 학교폭력 경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2018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편은 전수조사 외 표본조사를 도입하고 현실성 높은 조사 문항을 개발하며, 솔직한 응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사환경을 조성하여 조사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 이와 함께, 17개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인식 등을 조사한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하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방안 주요 내용

- 이번 실태조사 개편은 2012년부터 실시해 온 현 조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근 사이버 폭력 증가 등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적극 대응하며, 그간 운영하면서 제기된 학교현장의 부담 및 조사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이를 위해, '17년 4월부터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학교 현장 방문 및 전문가 협의회, 시·도담당자 워크숍, 전문가 포럼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 정책연구('17.4.~12.), 워크숍('17.7.19.~21.), 포럼('17.10.13), 공청회('17.11.14)
-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조사 체계는 조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수조사 2회에서 전수조사 1회와 표본조사 1회로 개편된다.
 - 전수조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해 학년 초에 실시하여 기존 조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반면,
 - 표본조사는 학년 말에 실시하여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및 심층 원인분석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 조사 문항은 최근 사이버 폭력 등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을 반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 및 인식수준을 고려하여 초등과 중등용 문항을 분리하여 개발하며, 피해학생의 심리를 고려하여 조사문항을 설계한다.
 - 조사 운영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조사 참여 환경을 개선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관련 연구도 추진한다.
- 위의 개편 기본방향에 맞추어 '조사 체계', '조사 문항' 및 '조사 운영'의 3개 분야를 핵심 개편과제로 설정하였고,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전 및 목표 】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목표

- 국가수준의 조사 실시로 학교폭력 예방 및 인식 제고
- 심도 있는 조사 실시로 맞춤형 학교폭력대책 수립 지원

기본 방향

- 표본조사 도입으로 조사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사이버 폭력 등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 반영
- 학생의 발달단계 및 인식수준을 고려한 문항 개발
- 피해학생 중심의 문항 설계 및 조사참여 환경 조성

조사 체계

표본조사 도입
(전수 1회 + 표본 1회)

조사실효성 제고

조사 문항

초·중등 문항 분리

사이버 상 경험과
실제경험의 구분

조사 운영

개별참여 환경 조성
(동일한 응답시간)

심층분석 및 연구

핵심 과제별 세부 내용

□ 첫째, 조사 체계는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표본조사를 도입한다.

◆ 표본조사 도입 (전수조사 연 2회 → 전수 1회 + 표본 1회)

- 학교급별-학년별 전체학생 약 3% (약 10만명 정도) 표집

◆ 1년으로 조사 범위 확대, 학교현장 고려한 조사 시기(1개월) 조정

○ 표본조사를 도입하는 조사 체계 개편은 연 2회 전수조사로 인한 학교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문항 수 제약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학교폭력의 세밀한 실태 및 영향 요인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 1차 조사는 전수조사가 학교폭력 예방 및 경각심 제고에 장점이 있으므로 서술형 신고문항이 포함된 전수조사를 학년 초에 실시하고,
- 2차 조사는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및 심층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년 말에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구분	전수조사	표본조사
조사 목적	학교폭력 발생률 조사	학교폭력 세부 실태 및 발생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조사 활용	예방 및 신고	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의 기초자료

- 조사 대상은 전체 초4~고3학년 재학생(하반기는 고3 제외)으로 기존 실태조사 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 조사 시기는 학기 초 업무부담 및 학생의 전·출입 등 학교현장을 고려하여 1개월을(1차 : 3~4월→4~5월 / 2차 : 9~10월→10~11월) 조정한다.
- ※ '18년 1차 전수조사 방식의 실태조사는 조사시스템 개발기간(5개월)을 고려하여 '18년 6월경에 실시 예정
- 조사 범위는 전수와 표본 조사가 각각 1년 단위로 조사되는 점을 고려, 조사 시점 기준으로 1년 동안의 학교폭력 경험을 조사한다.
- 표본조사 표집규모는 시·도 수준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전체 학생(380만명)의 약 3%(10만명 정도)를 표집할 계획이다.

□ 둘째, 조사 체계 개편에 맞추어 조사 문항도 개편한다.

- ◆ 학생의 발달단계 및 인식수준 고려, 초등·중등용 문항 분리 개발
- ◆ 피해자 심리를 고려한 문항 설계로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 유도
- ◆ 사이버 폭력 증가 추세를 반영해서 실제경험과 사이버상 경험 구분

- 전수조사는 전반적인 실태(현황)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문항으로, 표본조사는 전수조사 문항과 연계한 세부문항과 심층 분석을 위한 분석문항(배경문항, 시도 맞춤형 문항)으로 구성된다.

※ 전수 : 목격·피해·가해 및 신고 문항으로 총 4개영역, 최소 3개~최대 48개

※ 표본 : 목격·피해·가해, 배경 및 시도 맞춤형 문항으로 총 5개영역, 최소 21개~최대 91개

※ 배경문항은 개인, 또래, 가정 및 교사 수준 등 / 시도 맞춤형 문항은 시·도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문항을 모듈화

- 그 동안 초4-고3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여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조사 문항을 초등학생의 발달단계 및 인식수준을 고려하여, 초등·중등용 문항으로 분리하여 개발하며,
 - 초등용은 초4학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개선, 예시 및 그림 삽입 등을 통해 응답오류를 최소화하고 성실한 답변을 유도할 계획이다.
- 문항 영역은 피해경험을 응답하는 학생의 성실한 응답유도를 위해 '피해-가해-목적'에서 '목적-피해-가해' 순으로 재배치한다.
- 학교폭력은 피해유형에 따라 7개*로 나뉘며, 최근 사이버 폭력의 증가 추세를 고려, 실제생활과 사이버상의 학교폭력 경험을 구분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개선한다.
 - * 언어폭력, 따돌림, 강요, 금품갈취, 스토킹, 신체폭행, 성희롱(성추행)
- 피해유형별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세부 문항(힘든 정도, 피해빈도, 피해장소 및 시간, 가해자 유형)을 유형별 하위 항목으로 구성한다.

□ 셋째, 개편된 조사 체계에 따라 조사 운영도 개선한다.

- ◆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유도를 위한 조사시스템 기능 개선
- ◆ 실태조사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연구 추진

- 학생들이 가정에서의 개별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부득이하게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참여하는 경우, 솔직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기능적 개선* 등을 통해 학교에서의 개별 참여환경을 개선한다.
 - * (예) 피해경험이 없어 3개만 응답하는 경우 퀴즈를 풀거나 예방콘텐츠를 보게 하여 학생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종료하도록 기능 개선
- 전수 및 표본조사 결과는 기존과 같이 전국 및 시도 수준으로 기본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령에 따라 2회 공표하며,
 - 표본조사의 경우, 배경변인 등 영향요인과 조사결과와의 관련성을 최신 통계기법으로 분석하기 위한 별도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 표본조사 결과를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제공하여 심층 분석 연구 추진
- 학교별 정보공시는 시의성을 고려하여 현행 11월에서 9월로 조정하고, 표본조사 결과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결과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 (기간 및 방법) '17. 9. 18. ~ 10. 27. (6주간) 온라인 조사 ('12년 1차는 우편조사 실시)
- (참여학생) 초4 ~ 고2 재학생 360만명 참여
- (조사내용) '17년 4월부터 조사 참여시까지 학교폭력 관련 경험 및 인식
- (위탁기관) 한국교육개발원(조사개발 및 분석)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온라인 조사 시스템 운영)
- (공표) 17개 시·도교육청 및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11월 말 공시) 홈페이지

- ◆ 피해응답률 0.8%(2만8천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
- ◆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순
- ◆ 가해응답률 0.3%로 동일, 목격응답률 2.3%로 0.2%p 감소

□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조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4학년부터 고2학년 재학생(360만명)이 참여한 결과로,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 및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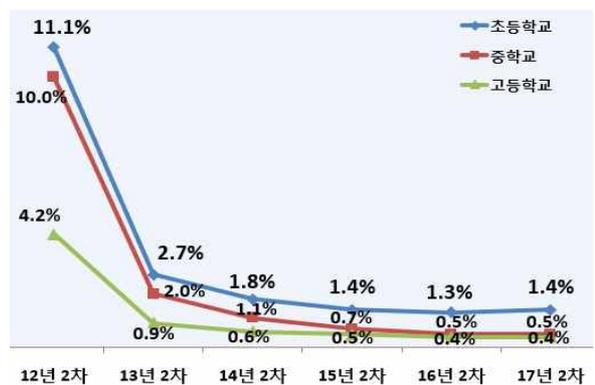
□ 피해응답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한 0.8%(2만8천명)로 나타났다.

- 피해응답률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0.8%(2만8천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하였다.
- 초등학교 1.4%(1만7천5백명), 중학교 0.5%(7천1백명), 고등학교 0.4%(3천5백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초등학교에서 0.1%p 증가하였고, 중·고등학교는 동일하였다.

< 전체 피해응답률 >



<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



-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유형별 학생 천명당 피해응답 건수는 언어폭력(5.6건), 집단따돌림(2.6건), 스토킹(1.7건), 신체폭행(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 피해유형 응답건수(2차) : '15년 71천건 → '16년 60천건 → '17년 60천건
- 피해유형별 비율도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16.4%), 스토킹(11.1%), 신체폭행(11.0%) 등으로 나타났다.



- 피해 장소는 주로 학교 안에서, 피해 시간은 주로 쉬는 시간이 높았다.
- 학교폭력 피해 장소는 '교실 안'(32.6%), '복도'(14.0%), '급식실·매점 등'(9.5%) 등 주로 '학교 안'(69.6%)에서 발생하였다.
- 학교폭력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5.1%), '점심 시간'(18.0%), '하교 이후'(13.6%), '수업 시간'(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가해응답률 0.3%로 동일, 목격응답률 2.3%로 0.2%p 감소하였다.
- 가해 응답률은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0.3%(1만1천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하였다.
- 목격 응답률은 '학교폭력 목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3%(8만4천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2%p 감소(1만명↓)하였다.
- 피해 후 신고 및 목격 후 행동엔 적극적이고, 방관응답은 줄었다.
-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은 79.3%이며, 대상은 '가족'(38.1%), '학교'(22.2%), '친구나 선배'(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 피해 미신고 이유 :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9.1%) > 스스로 해결하려고(16.6%)
-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76.3%이며, '모르는 척했다'는 방관 응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25.5%→22.8%)하였다.

‘제3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경고등, 족·윤적 자동감정 및 분석프로그램 개발 등 창의적 아이디어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제3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12월 6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했다.
 - 이번 공모전은 과학·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반부와 경찰부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 이번 공모전에는 총259건(일반부 151건, 경찰부 10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2차례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6개의 최종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 <일반부>에서는 △사고발생시 충격 또는 음향데이터 분석을 통한 ‘2차 사고 방지 가드레일 경고등’을 제안한 김건호팀(과기정통부장관상)과 △정보통신기술과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융합한 부착형 방범설비인 ‘우리마을 범죄 살충제, 무당이’를 제안한 안재민팀(경찰청장상)이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 *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경찰부>에서는 △자동으로 족·윤적(발과 차바퀴 흔적)을 감정하고 동일한 족·윤적이 관찰되는 지역을 분석가능하게 하는 ‘족·윤적 자동감정 및 분석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 조상현 경사팀(경찰청장상)과 △‘특수용

액과 면발광 필터를 이용한 지문촬영 신기법 개발'을 제안한 정훈성 경위(과기정통부장관상)가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 이 외에도 △경찰 민원상담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적용한 스마트폰 앱인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민원상담 챗봇 '폴봇'(일반부)', △차량용 블랙박스에 GPS 기능을 장착하여 범죄예방과 수사에 활용하는 '시민의 눈, CES(Citizen's Eye System)(경찰부)' 등 창의적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이번 수상작에 '18년 추진 예정인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시범사업(폴리스랩)' 과제선정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시 자동 응모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 국민-경찰-연구자가 협업하는 리빙랩(Living-Lab) 방식의 연구개발 신규사업

- 또한,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과 경찰의 참여를 기반으로 '과학치안'이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치안의 융복합을 활성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제3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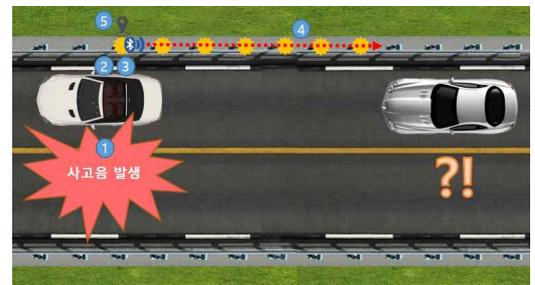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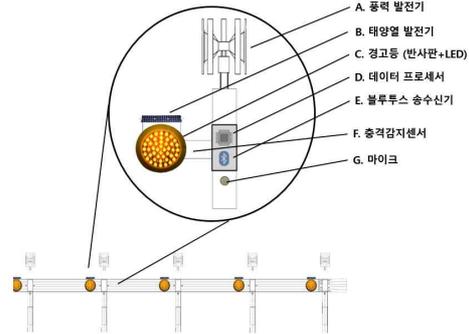
3. 제3회 치안과학기술 연구포럼」 계획

2차 사고 방지 가드레일 경고등

아이디어

고속도로에서 차량 이상이나 사고시 발생하는 충격 또는 음향 데이터를 분석하여 후방 운전자들에게 전방 상황을 알려줌으로써, 2차 사고 예방

- ▶ 반사판을 통해 기존의 델리네이터처럼 도로 선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사고발생 시 LED 점등을 통해 후방 운전자에게 서행 유도
- ▶ 마이크로부터 전달받은 음향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사고 발생음의 파형 패턴에 대한 빅데이터 비교분석을 통해 사고 여부 판단
- ▶ 충격 감지를 통해서도 사고 여부 판단 가능
- ▶ 사고로 판단 시 블루투스 송신기를 통해 후방 400m 까지 위치한 LED 점등
- ▶ GPS 를 통해 인근 소방서/경찰서에 사고 발생 위치 전송하여 빠른 대처 가능



우리 마을 범죄 살충제 '무당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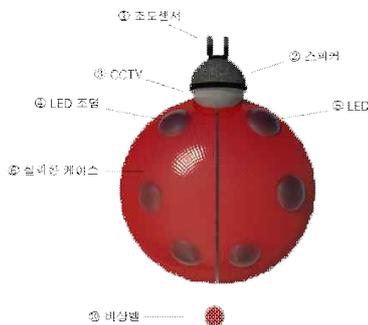
(ICT 기술과 CPTED 를 융합한 부착형 방법설비)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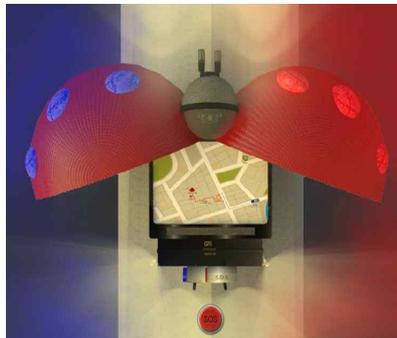
아이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근거리 데이터 공유와 에너지 자립형 IoT 디바이스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방법설비(무당이)를 개발하여 범죄 예방 및 위급 상황발생시 기존 방법시스템과의 실시간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효율적 대처

- ▶ 전봇대와 골목 외벽 등에 무당이를 설치하여 빛의 공간이라는 시각적 효과와 클래식 음악, 설비의 상징성 등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범죄예방 가능
 - ① 주변이 어두워지는 것을 인지하여 자동 작동, ② 평소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나오며, 비상벨 작동시 사이렌이 울림, ③ 비상벨 작동 시 경찰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화면 송출, ④,⑤ LED 조명으로 비상벨 작동 시 각각 빨간색, 파란색으로 빛 내뿜음, ⑥ 외부충격에 강한 합성 실리콘 소재 사용
- ▶ 위급상황 발생시 '무당이'와 '앱APP'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피 장소 가이드라인 제시



<무당이> 구성요소>



<무당이> 작동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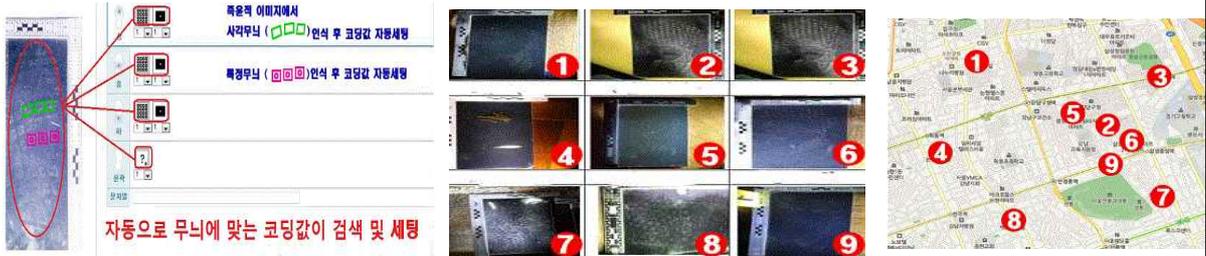


<가상 앱(APP) 예시>

족·윤적 자동감정 및 분석프로그램 개발

아이디어 자동으로 족·윤적을 감정하고 동일한 족·윤적이 관찰되는 지역을 분석함으로써 피의자의 여죄나 연관성 프로파일링까지 활용 가능한 “족·윤적 자동감정 및 분석프로그램” 개발

- ▶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처럼 족·윤적을 자동으로 검색 후 감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된 동일한 족·윤적이 관찰되는 지역을 자동으로 취합하여 지역별·수치별로 표시해주는 시스템 개발



<족·윤적 자동검색 및 선택(예시)>

<동일한 족·윤적 자동 취합(예시)>

<동일 족·윤적 발생지역 표시(예시)>

특수용액과 면발광 필터를 이용한 지문촬영 신기법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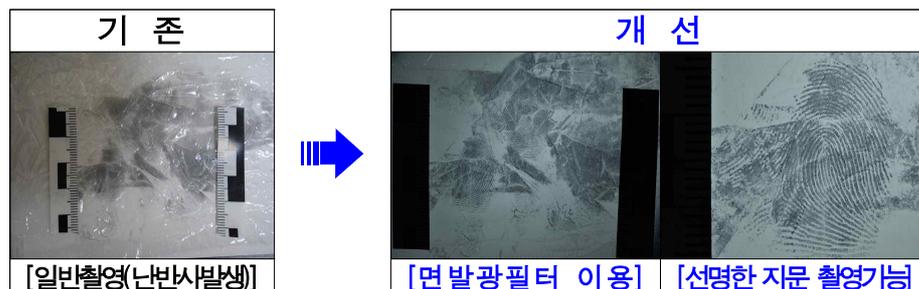
아이디어 곡면 검체·투명 전사판, 구겨진 비닐 등 비다공성 검체에 유류된 지문을 특수용액과 면발광 필터를 활용하여 특수용액과 면 발광필터에서 발광하는 주변광을 역광으로 이용하여 난반사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매우 선명한 지문을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신 기법 개발

경찰

- ▶ 유리병 등 비다공성 검체의 표면은 지문 채취 시 검체 표면의 굴곡으로 인해 전사판을 사용하기 어렵고 사진 촬영 시 난반사가 발생하여 지문 채취가 어려움
- ⇒ 특수용액(형광증백제)을 개발·사용함으로써 품질 좋은 지문을 채취



- ▶ 분말법을 이용하여 전사판 지문을 채취하는 경우 지문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지문이 훼손되거나 사진 촬영 시 난반사가 발생함
- ⇒ 면 발광필터에서 발산되는 고른 빛을 역광으로 활용하여 촬영함으로써 난반사를 방지하고 전사판 없이 직접 사진 촬영하여 선명한 지문을 채취



□ 행사 개요

- (목적) 치안R&D 성과 확산 및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산학연이 함께하는 협력의 장 마련
- (일시/장소) '17. 12. 6(수). 14:00~17:20, 서울대학교 BK다목적회의실(39동)
- (참석) 경찰청 기획조정관,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제3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학계 및 연구계* 관계자 등 100여명
* 순천향대 홍성욱 교수, 고려대 박성환 교수, 서울대 김남수 교수
- (주최·주관) 경찰청(주최),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단(주관)

□ 주요내용

- (1부) 기념식(제3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 (2부) 치안 R&D 세미나

「제3차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주요내용

- ▶ 주최/주관 :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KIST(융합연구정책센터)
- ▶ 공모기간 : '17. 9. 25. ~ 10. 31.
- ▶ 응모대상 : 일반국민(청소년 포함), 경찰관(행정관·의경 포함)
- ▶ 응모내용 : 과학기술·ICT 활용, 치안분야 R&D·시범사업 아이디어
- ▶ 시상 : 일반국민·경찰관 2개 부문별 총 16명 선정(최우수·우수·장려)

□ 세부 일정(안)

시 간		행사내용
(1부) 기념식		
14:00~14:05	5'	개회
14:05~14:20	15'	개회사, 환영사 및 축사
14:20~14:35	15'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14:35~14:40	5'	폐회 및 기념촬영
(2부) 세미나		
15:00~16:00	60'	<Session 1> 치안현장을 위한 R&D 방향
16:00~16:20	20'	Coffee Break
16:20~17:20	60'	<Session 2>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주요성과

수호랑, 반다비와 함께하는 전통문화관광 특별공연과 평창 동계 올림픽 홍보 행사 실시

- 2017. 12. 8.~12. 17. 인천국제공항 입·출국장 일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8일(금)부터 17일(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 입국장, 출국장 등에서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관광 특별공연과 함께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 올림픽·패럴림픽 대회의 홍보 행사를 실시한다.

‘한국 고유의 가(歌)·무(舞)·악(樂)’을 주제로 한 이번 전통문화관광 특별공연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패럴림픽 마스코트(이하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가 출연해 관객과의 사진 찍기(포토타임) 등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와 동계 올림픽(‘18. 2. 9.~25.)·패럴림픽(‘18. 3. 9.~18.)을 널리 알린다. 그동안 인천공항에서는 마스코트 고정 조형물을 통해 평창대회를 알려왔는데 마스코트 인형탈을 활용한 동적인 홍보활동은 처음이다. 더불어 이번 공연은 젊은 국악인과 연희단체로 구성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8일(금)부터 13일(수)까지 매일 오후 1시에는 인천공항 1층 입국장 밀레니엄홀에서 사자탈춤, 풍물놀이, 판소리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12월 14일(목)부터 17일(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는 인천공항 출국장 한국 전통문화센터에서 수호랑·반다비와 함께하는 탈놀이, 사자탈춤 등을 처음으로 진행해 여행객들이 한국의 생생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등을 포함한 풍류단체와 실내악단체 등 청년 약 300명(연인원)이 출연한다. 주요 출연자들은 지난 시범행사(11. 21.~30.)에서도 내외국인 2,100여 명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고 평창대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인천공항 전통문화 공연과 평창 마스코트 홍보활동 체험자 소감>

- #1 외국인 ㄱ: “한국의 전통문화도 보고, 올림픽마스코트랑 기념사진도 찍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스키에 관심이 많은데 다음에 한국에 또 오고 싶어요.”
- #2 어린이 ㄴ: “수호랑과 반다비가 귀여워요. 꼭 안아줬어요. 올림픽 파이팅!”
- #3 회사원 ㄷ: “사실 내년 평창올림픽이 열린다는 게 실감이 안 났는데 이제 조금씩 실감이 나네요. 홍보물을 받아보니 이번 연말연시에 강원도에 여행가고 싶네요.”

아울러 12월 행사 기간 동안에는 체험객 사진 이벤트를 진행해 매일 10명(총 100명)에게 소정의 상품(기프트콘)을 증정한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마스코트와 함께 전통공연을 즐기는 관람객(본인)의 모습을 누리소통망(SNS)에 올린 뒤 화면을 캡처해 공지된 메일주소(chfairport@chf.or.kr)로 발송하면 된다. 접수 시간, 접수 방법, 당첨자(중복자 제외) 등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단 누리집(www.ch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천공항 내에는 한국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 전통문화 시설 5개소가 있다. 연간 내외국인 약 90만 명이 이곳에서 우리 겨레의 예지가 깃든 전통문화 전시를 관람하고,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에서 전통문화와 함께 국가행사인 평창 동계 올림픽·패럴림픽을 널리 알리겠다.”라며 “내년 3월까지, 인기 있는 전통문화관광 상설프로그램인 ‘왕가의 산책’ 등에도 매일 마스코트가 함께해 하나 된 열정으로 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통문화관광 프로그램 구성

붙임 1

전통문화관광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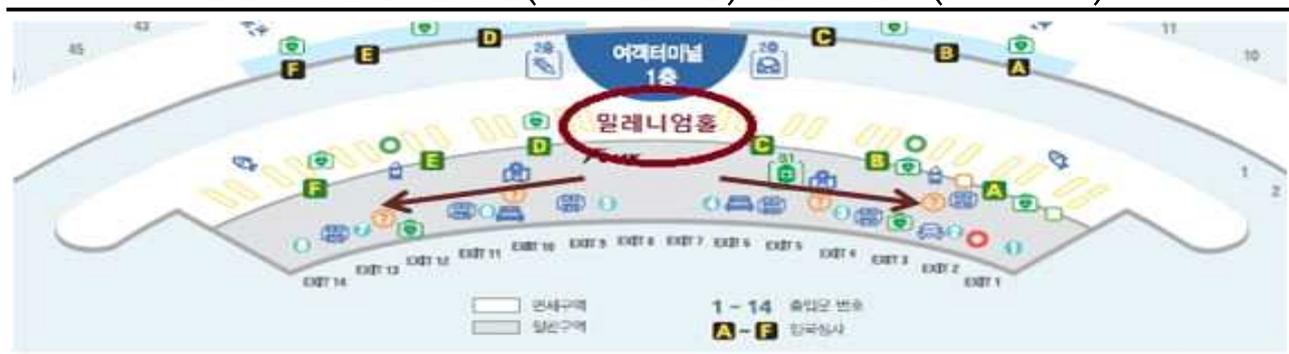
일정/시간	출연자	프로그램 구성(안)	출연자 소개
12.8(금)~9(토) 13시(50분) 1층 입국장	더원 아트코리아	- 판 비트 소리 - 국악가요 - 남도민요 연곡 - 사자춤과 연희, 버나돌리기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창작 및 기획하는 단체
12.10(일)~11(월) 13시(50분) 1층 입국장	더 광대	- 이매놀음 - 사자놀음 - 버나놀음	풍물 탈춤 남사당놀이 별산굿 등 한국의 민속 예술을 전공한 예인들이 구성된 공연예술단체
12.12(화)~13(수) 13시(50분) 1층 입국장	소울지기	- 겨울날 다스 빛을 - 벚꽃잎 훑날릴제 - 단풍, 꽃보다 고와라 - 사랑거짓말이 - 다함께 전통연희를 (사자춤, 버나놀이)	정가를 토대로 새로운 곡을 창작해 내어 가곡의 대중화를 추구하는 단체
12.14(목)~15(금) 10시(30분) 3층 출국장	한배 아트컬쳐	- 사자탈 퍼레이드	연희극 전통음악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보급하는 단체
12.16(토)~17(일) 10시(30분) 3층 출국장	월천컴퍼니	- 사자탈 퍼레이드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과 현대음악의 주체적 수용을 지향하는 단체
12.18~3월 수시/출국장	-	- 왕가의 산책(퍼레이드) 등	조선시대 왕 공주 등 분장 연기자

□ 프로그램 운영장소

인천국제공항 출국장(1터미널 3층) 한국전통문화센터(12.14~17, '18.1~3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1터미널 1층) 밀레니엄홀(12. 8~13.)



‘미래 농업기술을 한 눈에, 「2017생명산업과학기술 대전」 개최

- 12월 5일(화)부터 7일(목)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 -

《 주 요 내 용 》

◆ 행사 개요

- 기간 및 장소 : '17. 12. 5(화)~7(목) 3일간, 서울 양재 aT센터
- * 개막식: '17. 12. 5(화), 14:00~15:00
- 슬로건 :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스마트 미래농업'
- 주최 /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 공동주관 :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주요 행사 개요

- (개막식)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및 창업콘테스트 우수작 시상 등
- (전시·체험) 스마트 미래농업관(주제관), 6개 테마관(종자생명관, 농업기술관, 청정농업관, 식품기술관, 창업성장관, 농산촌치유관), 체험관, 특별관(과학기술대상 수상관, 한·일 기술협력관, 농림기술역사관)
- (학술행사) 농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산업곤충 연구 국제 심포지엄,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연구동향 심포지엄, 스마트 그린오피스 구현 방안 심포지엄 등 7개 행사
- (연계행사) 제4회 곤충요리경연대회, 농업기술실용화 및 창업보육 설명회, 농식품 R&D 특허정보 활용 컨설팅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7 생명산업과학기술 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04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어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생명산업 과학기술대전'은 농식품 과학기술의 주요성과를 전시하고, 다양한 체험행사와 심포지엄을 통해 미래농업의 가치와 비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 이번 행사는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스마트 미래농업"이라는 주제로 IoT, 빅데이터(Big-Data)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바이오기술(BT)을 농식품분야에 접목한 다양한 첨단기술과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 개막식은 12월 5일(화) 오후 2시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농업인 단체장, 관련 협회장, 기업대표 등 농식품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aT센터 제1전시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 개막식 행사는 2017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및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 우수작**에 대한 시상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환영사, 내빈 축사, 개막식 퍼포먼스 등으로 이어진다.
- * 포장 1점,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3점, 농식품부장관표창 19점
- **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농식품부장관상 2점
- '주제관'인 '스마트 미래농업관'에서는 생산부터 가공·유통·안전·소비 그리고 치유까지 전 분야에 걸쳐 ICT, IoT, 빅데이터(Big-Data) 등이 접목된 미래기술을 선보이게 된다.

- 올해 국가 R&D 우수성과 100선으로 선정된 “국내개발 우수 신품종”을 비롯한 동식물·미생물을 활용한 다양한 신소재와
- 딸기 수확로봇, 산림 병해충탐지 자동화 드론, 과채류 접목로봇, 스마트폰 활용 작물생육 측정기술 등 첨단 신기술을 소개한다.
- 또한, 식품의 포장을 뜯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식품의 신선도와 잔여유통기한 확인이 가능한 ‘U-Food 스마트품질 모니터링 시스템’, 식중독균 제어 살균기, 맞춤형 식품 생산 3D 프린터, 피톤치드를 이용한 다양한 치유·힐링 제품 등 소비자에게 유용한 다양한 기술과 제품도 만나볼 수 있다.

□ ‘테마관’은 종자·생명, 첨단농업, 농식품안전, 식품, 창업, 치유 등 6개의 테마로 구성되며, 120개 부스에 공동주관기관*의 주요 성과와 50여개 농식품 관련업체의 개발 제품 전시 및 체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종자생명관’에서는 생명의 근원인 종자의 중요성과 미래 유망산업으로서의 가치를 볼 수 있으며, 우수 신품종 전시도 마련된다.
- ‘농업기술관’에서는 쌀 소비 촉진과 수급 안정, 밭농업 기계화, 기후변화 대응 등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첨단 신기술을 전시한다.
- ‘청정농업관’에서는 구제역·AI 등 동물질병 진단·예방기술과 동식물 검역기술 및 위생관리기술 등을 전시해 동식물 질병과 검역의 중요성을 알린다.
- ‘식품기술관’에서는 고령화, 소비패턴 변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차세대 기능성 식품 및 신소재가 전시되며, ‘창업성장관’에서는 농식품분야 R&BD 사업화 성과 및 우수 성공사례 등을 소개한다.

- 아울러 농산자원을 활용한 힐링기술 및 콘텐츠, 산림 치유기술, 생활 속 목재이용기술 등의 콘텐츠로 채워질 '농산촌치유관'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에 여유를 느껴볼 수 있다.
- '특별관'에서는 제20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수상기술(26점)과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농림기술 변천사와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 50년의 연구 성과도 만나볼 수 있다.
- 특허청, 신용보증기금 등 8개의 전문기관*이 참여한 기술교류관에서는 특허 및 기술이전, 금융(모태펀드, 신용보증 등), 농식품 R&D 지원제도, 품종보호·등록 등에 대한 1:1 상담 및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 * 특허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식품연구원, 국립종자원
- '체험관'에서는 드론 시뮬레이터 체험, DNA 추출, 농기계 시승, 식물 정유 디퓨저방향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일반인과 학생이 참여한 곤충요리 경연대회 등 이벤트도 열어 행사의 참여도와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 행사 기간 중에는 포럼, 심포지엄 및 설명회 등 학술행사와 연계 행사도 동시에 개최된다.
- 첫째날(12. 5)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는 '제16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이 '과학기술과 농림식품산업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네덜란드 모사미트(Mosa Meat)社 CEO인 피터 버스트레이트(Peter Verstrate), 일본 지바대학교 에이지 고토(Eiji Goto) 교수 및 미국 랜슬러공대 마테오스 코파스(Mattheos Koffas) 교수 등 해외 유명 연사를 초청하여 개최되며, 3층 세계로움에서는 '산림분야 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성과 심포지엄'이 진행 된다.

- 또한, 둘째날(12. 6)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는 ‘잠사과학 60년 기념 산업곤충 연구 국제심포지엄, 4층 창조룸에서는 ‘인삼 약용작물·버섯 이용 기능성 연구 현황 및 산업화 전략 심포지엄’, 3층 세계로움에서는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연구동향 토론회’가 개최된다.
 - 마지막 날(12. 7) aT센터 3층 세계로움에서는 ‘스마트 그린오피스 구현 방안 심포지엄’, 지하 1층 루치아홀에서는 ‘식품 분야 최신기술 동향 교류를 위한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등 농식품 분야 전문가들의 논의와 미래 이슈 발굴을 위한 장(場)이 펼쳐질 예정이다.
 - 이 외에도 12월 5일과 7일 4층 창조룸에서는 각각 ‘농업기술 실용화지원사업 및 창업보육 설명회’, ‘농식품 R&D 특허정보 활용 컨설팅’ 등 연계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농업인·연구자·산업체를 비롯한 일반국민이 현재와 미래의 농식품분야 첨단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소통과 공감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첨단과학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농식품 기술개발·보급이 보다 활성화되고, 개발된 유망기술이 농산업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 고 전했다.
- 행사 참여방법, 일자별 프로그램 등 보다 자세한 사항 ‘2017 생명산업 과학기술대전’ 홈페이지(www.agribioexpo.org/2017/) 또는 대표전화 031-420-6731~3(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주요 행사 안내

일 자	시 간 (10:00~18:00)	개최장소	행사명	
12.5 (화)	개막식	14:00~ 15:00	aT센터 제1전시장	· 개막행사(장관, 국회의원 등 내빈 참석) * 개최선언, 시상식, 환영사, 축사, 퍼포먼스 등
	학술 행사	15:00~ 18:10	aT센터 그랜드홀(5F)	·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15:00~ 17:40	aT센터 세계로룸(3F)	· 산림분야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성과 심포지엄
	연계 행사	15:00~ 17:00	aT센터 창조룸 I (4F)	· 농업기술실용화지원 및 창업보육 설명회
12.6 (수)	학술 행사	09:30~ 17:00	aT센터 그랜드홀(5F)	· 잠사과학 60년 기념 산업곤충 연구 국제 심포지엄
		13:00~ 17:00	aT센터 창조룸 I (4F)	· 인삼·약용작물·버섯 이용 기능성 연구 현황 및 산업화 전략 심포지엄
		14:00~ 17:00	aT센터 세계로룸(3F)	·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연구동향 심포지엄
	연계 행사	14:00~ 18:00	aT센터 제1전시장	· 제4회 곤충요리경연대회(일반부)
12.7(목)	학술 행사	13:00~ 17:00	aT센터 세계로룸(3F)	· 스마트 그린오피스 구현 방안 심포지엄
		10:00~ 13:10	aT센터 루치아홀(지하1F)	· 식품분야 최신기술 동향 교류를 위한 컨퍼런스
	연계 행사	14:00~ 18:00	aT센터 제1전시장	· 제4회 곤충요리경연대회(학생부)
		14:00~ 16:00	aT센터 창조룸 I (4F)	· 농식품 R&D 특허정보 활용 컨설팅

□ 전시관 구성

구분	주요내용
주제관 (스마트 미래농업관)	○ 농식품 분야 4차 산업 핵심기술 접목 성공사례 및 첨단 미래농업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성과물 전시 * SMART SEED, SMART FARM, SMART FOOD, SMART SAFETY, SMART HEALING
테마관	○ 생산·가공·유통·안전 및 치유로 테마를 구분하여 우수성과물 전시 * 종자생명관, 농업기술관, 청정농업관, 식품기술관, 창업성장관, 농산촌치유관
체험관	○ 각 전시관과 연계하여 곤충·식물정원·농기계 등 생명산업 및 과학 기술 시연·시식·체험 공간 운영
특별관	○ 농림기술역사관, 한·일 기술협력관, 과학기술대상 수상관의 역사 및 성과 전시 ○ 8개 전문기관[특허 및 기술이전, 금융(모태펀드, 신용보증 등), 농식품 R&D 지원제도, 품종보호·등록 등] 1:1 상담 및 컨설팅

국민 89.9% “1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 필요”

◇ 컵보증금제가 시행될 경우, 응답자 61.8%가 다회용컵을 사용할 의향이 있으며, 69.2%가 사용한 컵을 반환하겠다고 응답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이하 ‘컵보증금제’)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9%가 제도 도입에 동의(찬성 71.4%, 수용 18.5%)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주)한국리서치를 통해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환경부의 1회용품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1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회용컵 사용 증가에 대해 응답자 78.6%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대답은 3.7%에 그쳐, 1회용컵 문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컵보증금제 도입 시 예상되는 효과로는 ‘1회용컵 사용감소’(45.5%), ‘자원의 재활용’(41.5%), ‘길거리투기 방지’(12.2%) 등을 꼽았다.
- 컵보증금제가 시행될 경우, 응답자의 61.8%가 다회용컵을 더 많이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하여, 제도 도입이 1회용컵 사용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 응답자의 69.2%는 구입한 1회용컵을 반납하겠다고 답해, 컵보증금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1회용컵의 회수·재활용 활성화, 길거리 투기 방지 등에 크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었다.
- 최근 시민단체 등에서도 컵보증금제 도입에 대한 국민 찬반 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번 조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 올해 7월, 한국자원경제연구소가 커피전문점 이용객 210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한 결과 85.7%가 컵보증금제 도입에 찬성하였다.
- 같은 해 9월, 여성환경연대에서 전국 1,0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1.9%가 컵보증금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 이 같은 결과는 '13년 국민 인식조사시보다 컵보증금제 도입 찬성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당시에는 1,000명 중 56%가 컵보증금제 도입에 찬성했다. 최근 급증하는 1회용컵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이 주요인으로 보인다.
- 한편, 응답자의 10%는 컵보증금제 도입에 반대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로 '제품가격 상승 우려'(42.6%), '낮은 회수·재활용률로 인한 실효성 부족'(41.1%)을 꼽았다.
- 이에 따라, 컵보증금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물가 상승 방지, 사용한 1회용컵의 반환 독려 및 회수·재활용 인프라 구축 등의 대책 마련을 중요하게 고려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현재 1회용품의 사용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업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커피산업의 성장, 소비형태의 변화 등으로 1회용컵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1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국민 인식조사 결과 요약.

□ **조사 개요**

- (조사시기·대상) '17.10.26~11.4,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5명
 < 조사 응답자 구성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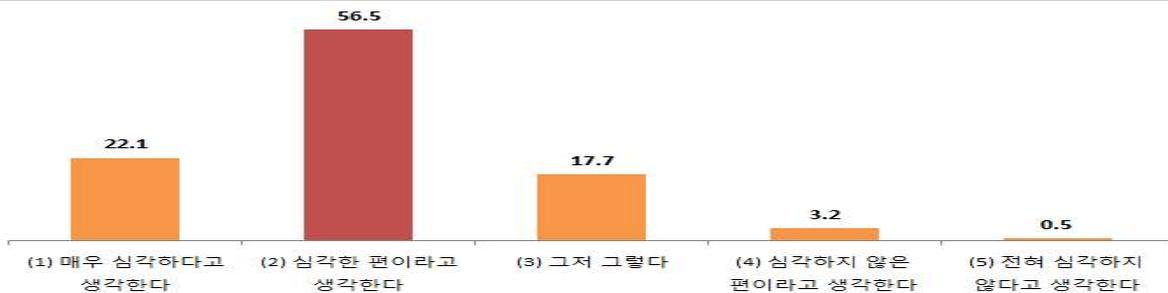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남	11.4%	12.1%	14.1%	13.5%
여	10.3%	11.5%	13.7%	13.4%

- (자료수집 기관) (주)한국리서치 (대표이사: 노익상)
- (표본오차) 95% 신뢰구간에 ± 2.2 %

□ **인식조사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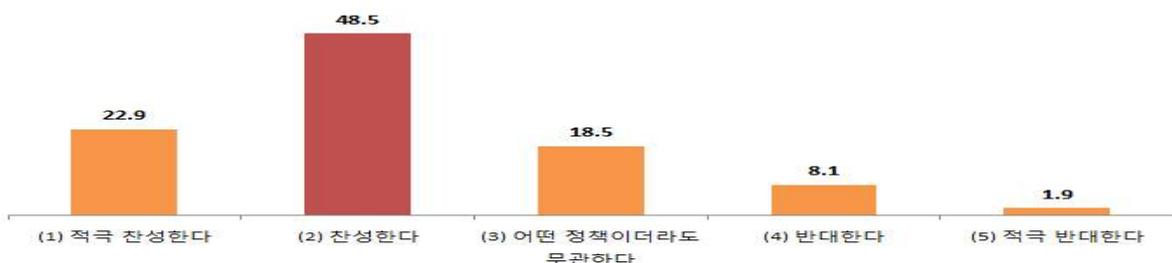
- 1회용컵 사용량 증가에 대한 인식
 - 매우 심각함(22.1%), 심각한 편임(56.5%), 그저그렇다(17.7%), 심각하지 않은 편임(3.2%), 전혀 심각하지 않음(0.5%)

(단위:%, Base: 2,005)



- 1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 적극 찬성한다(22.9%), 찬성한다(48.5%), 어떤 정책이라도 무관하다(18.5%), 반대한다(8.1%), 적극 반대한다(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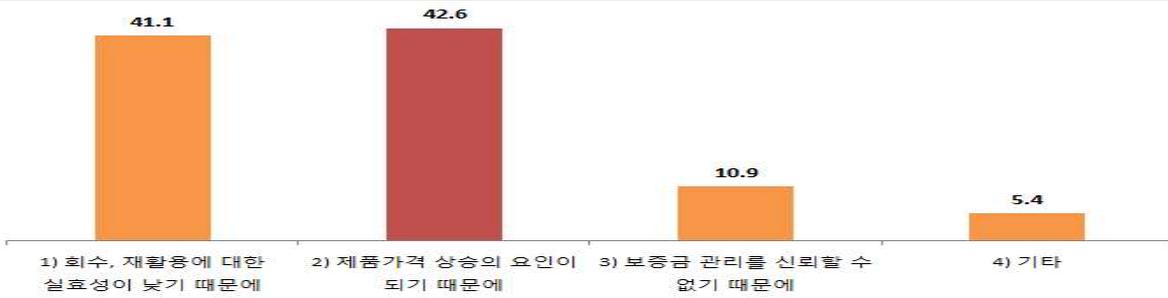
(단위:%, Base: 2,005)



- 1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 반대의 원인(202명 답변)

- 회수·재활용에 대한 낮은 실효성(41.1%), 제품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기 때문(42.6%), 보증금 관리 불신(10.9%), 기타(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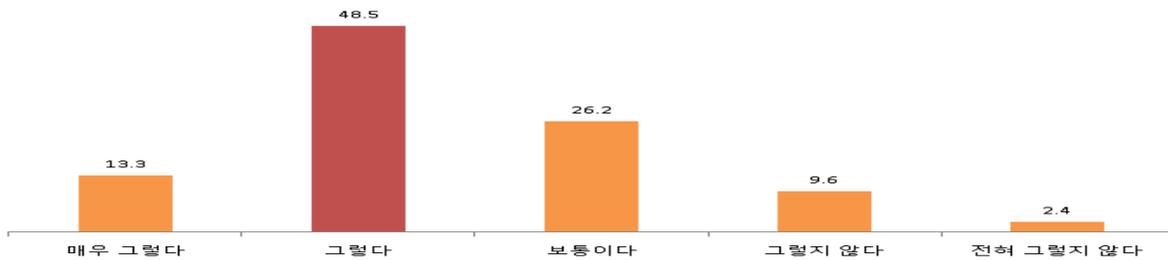
(단위:%, Base: 202)



○ 보증금제도 도입 시 머그컵 사용 의향

- 매우 그렇다(13.3%), 그렇다(48.5%), 보통이다(26.2%), 그렇지 않다(9.6%), 전혀 그렇지 않다(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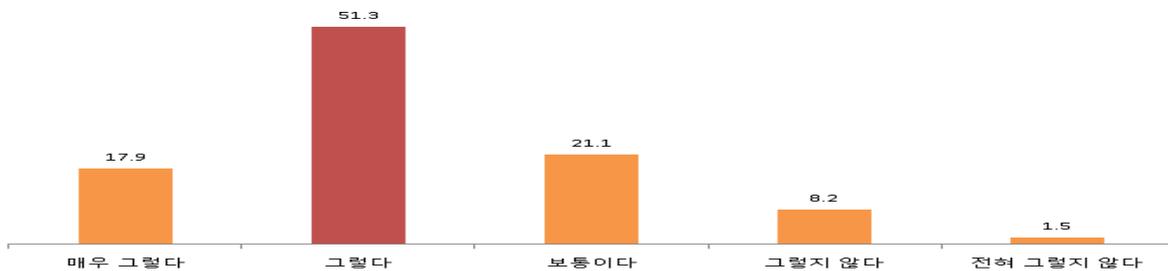
(단위:%, Base: 2,005)



○ 보증금제도 도입 시 매장 외부로 가져간 1회용컵의 반환 의향

- 매우 그렇다(17.9%), 그렇다(51.3%), 보통이다(21.1%), 그렇지 않다(8.2%), 전혀 그렇지 않다(1.5%)

(단위:%, Base: 2,005)



‘일·생활 균형’ 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룬다!

- 노사발전재단, 사업주단체 회원사 대상 ‘근로시간 유연화 및 단축제도 인식조사’ 결과 발표

- ‘일·생활 균형의 직장문화’는 기업의 경쟁력이자 생존전략
 - 중소·중견기업들은 유연근무제를 근로자들의 복지와 근무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업무능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
 -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직장문화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분석된다.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은 「2017년 일·가정 양립 사업주단체 협력사업」을 수행중인 경기경영자총협회 등 6개 사업주단체 회원사의 노사대표와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및 단축제도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일·가정 양립 사업주단체 협력사업) 소속회원사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근로유형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함께 추진할 6개 사업주단체를 선정하고 협정체결(2017년 4월)

(조사대상) 경기경영자총협회, 광주상공회의소, 대한치과의사협회, 부산경영자총협회, 한국HR 서비스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등 6개 사업주단체 회원사(응답기업: 700개,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 79.6%)

(조사기간) 2017. 7. 11. ~ 9. 28.

- 조사결과 응답 기업은 대부분 300인 미만(79.6%, 557개사)의 중소·중견 기업이며, 정부지원제도 활용의사에 관한 설문에서는 응답기업 중 34.8%(유효응답 520개 중 181개_복수응답)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재량·선택 근무제)와 재택·원격근무 지원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실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근로시간 유연화 제도)하고 있는 기업들 중 시차출퇴근제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58.8%, 유효응답 90개 중 53개),
- 유연근무제 활용이유로는 ‘근로자들의 복지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31.6%, 유효응답 79개 중 25개)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뿐만 아니라 ‘업무능력(생산성)향상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는 응답(31.6%, 유효응답 79개 중 25개)도 동일하게 나타나, 유연한 근로시간이 직장문화 개선과 함께 기업의 업무능력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 반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700개) 중 89%(623개)로 나타나 중소기업에서는 아직 유연근무제의 정착이 더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정식 사무총장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근로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여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와 경직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 현재의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생존전략의 필수요소”로, “앞으로도 재단은 기업들의 ‘일·생활 균형의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자료 첨부(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및 단축제도 인식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목적)**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근로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일·가정 양립(일·생활 균형, WLB)’ 제도의 활용 현황 및 향후 확산을 위해 설문조사(7.11. ~ 9.28.)를 실시
- **(대상)** 2017년 일·가정 양립 사업주단체 협력사업 회원사 노사대표 및 인사노무담당자(회원사 700개소 유효응답)
- **(내용)** ‘일·가정 양립’ 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및 단축제도 활용현황 및 인식관련 회원사대상 설문조사
- **(방법)** 사업주단체 회원사 방문 및 대면조사, 온라인(이메일) 조사, 유선전화 등을 통한 구조화된 16개 설문항목 응답
- **(기간)** 2017. 7. 11. ~ 2017. 9. 28.

2. 응답기업 통계현황

- 경기경영자총협회 등 6개 사업주단체* 회원사 700개 기업 노사대표, 인사·노무담당자 유효응답
 - ※ 경기경영자총협회, 광주상공회의소, 대한치과의사협회, 부산경영자총협회,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 **(규모)**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 조사 대상의 79.6%(557개사)를 차지하였으며, 300인 이상 500인 미만(78개사, 11.1%), 500인 이상 1000인 미만(54개사, 7.7%), 1000인 이상(5개사, 0.1%)의 순으로 나타남
- **(업종)** 제조업(269개사, 39%), 사업시설·지원(162개사, 23.5%), 건설업(63개사, 9.1%), 보건·사회복지(52개사, 7.5%), 도소매(43개사, 6.2%), 운수업(28개사, 4.1%) 순으로 응답(기타 금융, 보험, 출판 등 다양한 업종분포)
- **(제도 활용의사)** 유효응답 520개 중에서 유연근무제(126개사, 24.2%),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제도(123개사, 23.7%), 재택·원격근무제(55개사, 10.6%), 컨설팅지원(32개사, 6.2%) 순으로 정부지원제도의 활용의사를 나타냄

3.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활용현황 조사(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

- (유연근무제 활용현황)** 시차출퇴근제(53개사, 7.4%), 선택근무제(19개사, 2.7%), 재량근무제(18개사, 2.5%), 미운영(623개사, 89%_700개 기업 중)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의 활용기업 중 복수응답 포함(총 713개 유효응답)
- (유연근무제 활용이유)**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 중(유효응답 79개사) 근로자들의 복지·근무환경 조성(25개사, 31.6%), 업무능력·생산성 향상(25개사, 31.6%),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16개사, 20.3%), 우수인력 이직 방지(13개사, 16.5%) 순으로 나타남
- (유연근무제 도입계획)** 유효응답 599개 중 시차출퇴근제(147개사, 24.5%), 선택근무제(108개사, 18%), 재량근무제(28개사, 4.7%)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도입의사가 없다는 응답이(316개사, 52.8%)로 아직은 현장에서의 이질감이 큰 것으로 분석됨
- (유연근무제 도입이 어려운 이유)** “업종 특성상”, “업무 부적합”의 이유가 가장 많고,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인건비 부족” 등의 의견도 다수(자유응답_수기)
- (도입시기)** 유연근무제 도입예정으로 응답한 383개 기업 중 3년 이내에 도입 시기를 예상한 기업은 106개사(27.6%)로 나타남. 1년 이내 도입(27개사, 7%), 2~3년 이내 도입(79개사, 20.6%), 4~5년 이내 도입(59개사, 15.4%) 순이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18개사(57%)
- (재택·원격근무제 활용)** 운영하고 있지 않다(685개사, 98.4%), 재택근무제(9개사, 1.3%), 원격근무제(2개사, 0.3%) 순으로 나타나 근로 장소의 유연화에 대한 인프라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재택·원격근무제 도입계획)** 재택근무제(33개사, 5%), 원격근무제(42개사, 6.3%),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도입의사가 없다는 응답이(591개사, 88.7%)로 유연근무제보다 더욱 현장에서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재택·원격근무제 도입이 어려운 이유)** “업종 특성상”, “필요성이 없음”의 이유가 가장 많고,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사업장 여건”, “인건비 부담” 등의 의견도 다수(자유 응답)

- **(도입시기)** 재택·원격근무제를 도입 예정으로 응답한 214개 기업 중 3년 이내에 도입 시기를 예상한 기업은 34개사(15.9%)로 나타남. 1년 이내 도입(3개사, 1.4%), 2~3년 이내 도입(31개사, 14.5%), 4~5년 이내 도입(30개사, 14.0%) 순이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150개사, 70.1%)
-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지원 활용여부)** 재택·원격근무 도입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지원사업의 인지여부와 활용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참여를 희망한다’(48개사, 9.4%), ‘알고 있다’(101개사, 19.7%)로 나타남(유효응답 513개 중)

4.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현황 조사(전환형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지원제도)

-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현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38개사, 5.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30개사, 4.1%), 전환형 시간선택제(20개사, 2.8%) 순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78.8%(636개사)로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정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활용기업 중 복수응답 있음
-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이유)** 우수인력 이직방지(14개사, 35.9%), 근로자들의 복지·근무환경 조성(11개사, 28.2%), 가족친화(10개사, 25.6%), 적합업무(4개사, 10.3%) 순으로 나타남
- **(업무공백 대응)** 전환형 제도 활용으로 인한 업무공백 대처는 부서 내 조정(30개사, 40.5%), 임시직 채용(22개사, 29.7%), 회사 내 조정(11개사, 14.9%), 정규직 충원(8개사, 10.8%) 순으로 나타남
- **(대체인력 미충원 이유)** 인건비 부담(36개사, 42.9%), 내부해결(18개사, 21.4%), 임시직 충원의 어려움(15개사, 17.9%) 순으로 나타남
-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 적합한 업무가 없다(169개사, 18.4%), 직원 간 형평성(158개사, 17.2%),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157개사, 17.1%), 기존직원 업무과중(129개사, 14%) 순으로 나타남 (기타 업무몰입도 저하, 전문성 악화, 인력관리의 어려움 등) ※ 복수응답

보로로와 함께 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 '보로로와 친구들' 캐릭터를 활용한 유아용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 -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3~7세 유아들이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아용 온라인 교육콘텐츠(동영상)'를 제작·배포한다.
 - '유아용 온라인 교육콘텐츠'는 유아기부터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유아들에 친숙한 만화캐릭터 보로로를 활용해 제작됐다.
 - 12월 4일(월)부터 여성가족부(www.mogef.go.kr)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www.kihf.or.kr), 다누리 배움터(www.danurischool.kr)에 게시되며,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 다누리배움터(www.danurischool.kr) : 대상별 다문화 이해교육 콘텐츠, 다문화 관련 교육자료 등을 게시하는 온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사이트
- * 게시물 경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메인 → 주요정책 → 정책자료실 → 가족 → 250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메인 → 알림마당 → 홍보자료 → 홍보동영상 1페이지
다누리 배움터	메인 → 자료실 → 다문화인식개선콘텐츠 1페이지

- 동영상은 유아의 눈높이에서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학 전문가와 미디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제작됐으며, 유아용 콘텐츠 3편과 부모 안내서 1편으로 구성됐다.
- 유아용 콘텐츠는 앞서 지난 4월 제작·게시* 된 유아용 활동책 '너랑 놀래, 같이 놀래'와 함께 활용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다누리배움터

- 유아가 다문화를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뽀로로와 함께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서 **나라별 인사**를 배우고, **전통의상** 등을 만들어 보면서 **다름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콘텐츠 주제) ▲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 친구랑 놀면서 친해져요.
▲ 친구랑 다 같이 배워 봐요.

- 부모안내서에는 아이들이 다문화에 대해 알아가며 궁금해 할 수 있는 질문(예: “왜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나요?”)에 대한 답변, ‘안산 다문화 거리’ 등 아이들과 다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 정보 등이 담겼다.

□ 정회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 생기기 전인 유아기 때부터 다른 문화가 ‘틀림’이 아닌 ‘다름’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설명했다.

- 이어 “이번 동영상은 유아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그리고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교사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붙임】 유아용 온라인 교육콘텐츠 주요내용 1부

목차	주요내용
<p>1.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p>	<p>1. 스티커를 붙여서 다양한 생김새를 만들 수 있다. (활동) 생김새는 다르지만 소중한 내친구(붙이기 활동)</p> <p>2. 모습이 달라도 누구나 반갑게 인사하며 친구가 되어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활동) 새 친구 손 잡고 같이 놀아요(컬러링 활동)</p> <p>3. ‘서로다른 것’에 대해 ‘소중한 것’ 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활동) 다문화인식개선 캠페인 문구 따라하며 그림 맞추기(붙이기 활동)</p>
<p>2. 친구랑 놀면서 친해져요.</p>	<p>1. 종이 인형을 활용한 인형극으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다. (활동) 인형극 무대 만들기, 인형극 놀이</p> <p>2. 다른 나라의 전통 가옥과 그에 맞는 아이들 그림을 스티커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다. (활동) 친구집에 놀러가요(붙이기 활동)</p>
<p>3. 친구랑 다 같이 배워 봐요.</p>	<p>1. 입체 종이인형 만들기를 통해 다른 나라의 전통 옷차림을 알 수 있다. (활동) 세계의 옷차림을 배워 봐요(종이인형 만들기).</p> <p>2. 놀이를 통해 다른 문화권의 인사말을 배우고 서로 배운 인사말로 인사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알 수 있다.</p> <p>3.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를 통해 다양함을 인식한다. (활동) 세계 여러 나라 이름을 배워 봐요(국기 붙이기).</p>
<p>4. 다문화 이해교육 가이드</p>	<p>1. 부모(교사)들이 다문화이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다.</p> <p>2. 우리 자녀의 다문화 이해, 이렇게 도와주세요.</p> <p>3. 아이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 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나요? - 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결혼하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 하나요? - 얼마나 아빠가 외국인이면 그 아이들도 외국 사람 인가요?</p> <p>4. 자녀들과 함께 방문해 보세요(다문화 체험 관련 정보).</p> <p>5. 다누리 및 다누리 배움터 사이트 안내</p>

노후주택 재건축 통한 대학생·어르신 임대주택 첫 공급

-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696세대...임대료 주변 시세의 30% 수준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심 내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1~2인용 소형 주택으로 재건축·리모델링하는 방식(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을 도입하여 처음으로 696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고령자 임대주택 5만호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이번 첫 공급을 계기로 사업이 본격화될 계획이다.

<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

- (사업방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1인용 소형 주택(50㎡ 이하)으로 리모델링(개량·재건축)하여 공급
- (입주대상자) 고령자(65세 이상 무주택세대), 대학생(해당지역 소재지 외 대학생)
- (입주자 선정 기준) 1순위: 생계급여·의료보험 수급자, 2순위: 월평균 50%이하
- (임대료) 인근 지역 시세의 30% 수준

- 공급 지역과 물량은 서울, 수원, 인천 등 수도권은 145세대, 대전, 대구, 광주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551세대가 각각 공급된다.

< 입주자모집 지역별 신청 호수 >

전국 총 696 세대	지역별 공급물량
수도권(145세대)	서울(72), 수원(47), 인천(18), 부천(8)
대전·충청권(116세대)	대전(63), 청주(53)
대구·경북(218세대)	대구(208), 구미(10)
경남(54세대)	창원(22), 김해(14), 진주(18)
광주(139세대)	광주(139)
강원(24세대)	춘천(24)

※ 세부적인 입주대상, 보증금, 임대료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 참고

- 이번에 공급하는 696세대는 1~2인 가구 임대수요가 많은 대학생에게 499세대(72%), 고령자에게 197세대(28%)를 공급하게 된다.
 - 입주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대학생은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대학생으로서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이어야 한다.
 - 고령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이며 입주자 선정일 기준 사업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이 해당된다.
-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되어 저소득 대학생 및 고령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 (임대료) 서울시 성북구(보증금 360만 원, 월임대료 13~15만 원)
 수도권 외(보증금 450만 원, 월임대료 4~8만 원)

- 또한, 정부에서 처음으로 지난 7월에 착공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서울시 장위동에 위치한 공유(세어)형 임대주택(8호)도 이번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 공유형 임대주택에는 각 세대별로 별도의 방이 있고, 공동공간에 공동주방, 거실 및 세탁실을 배치(4층)하고, 옥상에는 휴게공간도 마련하여 입주자의 조망권과 정서적 유대감도 배려하였다.
 - 특히, 입주자 선정 기준에 자동차 미보유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주차장 여유 공간은 성북구청과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앞으로도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커뮤니티 공간을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여 차별화된 임대주택 공급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는 임대주택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입주자 모집은 11월 30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1~2월에 선정을 완료하여 빠른 곳은 2월부터 입주하게 된다.
- 입주 희망자는 12. 12(화)~12. 18(월) 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방문하여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노후된 주택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여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의 역할도 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학생, 고령자의 주거안정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업개요**

- 도심 내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매입 후 1~2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재건축)하여 저렴하게 공급



* 기존 매입임대주택 중 노후화 또는 기능·사용상 불량주택 등도 활용가능

□ **매입대상**

- (노후주택 매입) 공가 등이 발생하고 있는 도심 내 노후된 단독주택, 다가구 등 다양한 주택을 대상으로 함
 - 대학생, 고령자 등 1인 주거형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 교통 편리성 등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매입
- (매입임대주택 활용) 기존 매입임대주택 중 공공리모델링 사업으로 활용 가능한 주택을 발굴하여 리모델링하여 공급

□ **공급대상**

- 독거노인, 대학생 등 1~2인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공급
 - 고령자: 65세이상 무주택 세대(1순위: 수급자, 2순위 월평균 50%이하)
 - 대학생: 해당지역 소재지의 대학생(1순위: 수급자, 2순위 월평균 50%이하)

해수부, 해양플랜트 서비스시장 진출 교두보 놓다

- 타당성조사 지원사업15~17기 통해 156억 원 수주 성과 올려. 6일 시장설명회서 소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15~17)'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총 156억 원 규모의 수주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국내 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양플랜트 서비스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3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156억 원 규모의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 해양플랜트 건조 이후 운송, 설치, 운영, 해체 및 인력·물자 조달 등과 관련된 분야로, 해양플랜트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50% 이상이 창출되는 분야

대표적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해양플랜트 서비스 업체 '칸'은 동남아 대표 산유국인 말레이시아에 진출하기 위해 16년도에 정부 지원을 받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해양플랜트 유지보수 시장 수요와 협력 가능한 현지기업 등을 파악하고, 올해 5월 135억 원 규모의 '말레이시아 해양플랫폼 상부 설비 설치 및 시운전 공사 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하였다.

해양수산부는 12월 6일(수) 오후 2시 부산 벡스코에서 '제4회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시장설명회*'를 열고, 수주 성공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비롯하여 국내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다.

* 해양플랜트 서비스 시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해외 진출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되어 온 행사

설명회에서는 우수사례 발표 외에 국내 기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히는 해양플랜트 유지보수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이에 더하여, 석유개발사업과 해양플랜트 산업 간 연계 성장 전략과 해양플랜트 장비표준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정부 지원사업을 매개로 우리 기업이 경쟁이 치열한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여 성과를 내고 있어 다행스럽다.”라며, “앞으로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을 통해 우리 해양 기업들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지원,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해양플랜트 건조 부문에서 **조선 역량**을 기반으로 세계 1위 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양플랜트 서비스 분야***는 **걸음마 수준**으로,

* 건조 이후 운송, 설치, 운영, 해체 및 인력·물자 조달 등과 관련된 산업을 통칭

** 부가가치 비중(%) : 탐사·시추 7, 설계 8, 건조 35 / 운송 2, 설치 4, O&M 40, 해체 4

- **해양수산 혁신성장 실현을 이끌 신산업 창출 및 해양플랜트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에 정책역량 집중 필요**
 - 이에 서비스산업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의 **초기 의사결정 지원 및 리스크 부담 경감**을 위해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사업명)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사업기간/예산) '15년 ~ 계속 / 3억원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 (사업내용) 운송, 설치, 유지관리, 해체 등 해양플랜트 서비스분야 **프로젝트 발굴·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비용 보조**
 - 프로젝트 입안·설계, 금융조달 및 해외법인 설립방안 수립 등 서비스분야 **유망사업 발굴 및 수주 성공**을 위한 **전략 수립 지원**

□ 기대효과

- 우리나라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통한 **新 시장 개척 및 경쟁력 강화**
- 기업에 맞는 **해외진출 전략 수립**으로 서비스산업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기업의 초기 리스크 경감**
-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는 **해양플랜트 산업에 해외프로젝트 수주, 벤더 등록** 등을 통한 우리나라 기업의 **돌파구 마련**

□ **개최 목적**

- 관련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해외 해양플랜트 시장동향 및 전망, 국내외 주요 이슈와 정책 등 정보제공
 - 해양플랜트 서비스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방안 제시, 유망시장 소개 등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

□ **행사 개요**

- (일시) 2017년 12월 6일(수) 14:00 ~ 16:00
 - * 13시 30분부터 참가자 사전등록 실시
- (장소) 부산(백스코 314~317호)
- (참석자) 조선해양플랜트협회, ABS(미국 선급), KRISO, 한국석유공사, 해양플랜트 관련 국내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 등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13:30 ~ 14:00 (30')	참가자 등록	
14:00 ~ 14:05 (05')	내빈소개	
14:05 ~ 14:10 (05')	인사말씀	해양수산부
14:10 ~ 14:30 (20')	석유개발사업과 연계한 해양플랜트 산업의 인식과 두 산업의 연계전략	한국석유공사 차장 김선욱
14:30 ~ 14:50 (20')	해양플랜트 유지·보수 시장 분석 및 진출 전략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선임기술원 한성중
14:50 ~ 15:10 (20')	장비 표준화의 필요성과 유지·보수 산업 진출 방안	ABS 부사장 이호성
15:10 ~ 15:30 (20')	해양플랜트 서비스시장 진출 사례	
15:30 ~ 16:00 (30')	질의 응답 및 토의	
16:00	폐회	사회자

□ **컨퍼런스 개요**

- (時 · 所) '17.11.23(목), 10:00~18:00, 부산(웨스틴조선호텔)
- (주최/주관) 해양수산부 / 중앙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
- (참석자) 한·중·러·몽골 정부 인사 및 학계·기업인 등 100여명
- (주제) “新북방물류 : 도전과 과제”
 - 각국 정책동향·개발계획 소개, 물류기업의 프로젝트 공유, 북방물류 시장의 현실과 과제 발표 및 토론

□ **세부프로그램 (안)**

구 분	시 간	세 부 프 로 그 램
리셉션	09:30-10:00	◆ 참석자 등록 및 VIP 사전환담
개막식	10:00-12:00	◆ 개회사 : 엄기두, 해운물류국장 ◆ 축 사 :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 ◆ 기조연설 : 최근 북방물류 정책의 변화 (사회 : 류동근 한국해양대학교수) ① (중) 안국산, 연변대학교 교수 ② (러) 유리 보리소비치 페트로프, 교통부 수석보좌관 ③ (몽) 강바타르 다시더르지 도로교통부 국제협력국장 ④ (한) 박성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 기념사진 촬영
오찬	12:00-13:30	오찬
1세션	13:30-15:10	◆ 주제 : 주요 지역 물류 개발 계획 (사회 : 우수한 중앙대학교 교수) ① (중) 장동명 요녕대학 동북아연구원 원장 ② (러) 게오르기 니콜라예비치 콜파체프 극동개발부 극동투자수출청 부청장 ③ (몽) 세브짓 더르즈닥와 도로교통부 도로교통조사과장 ④ (한) 진규호 부장 부산항만공사(BPA)
휴식	15:10-15:30	Coffee Break
2세션	15:30-17:10	◆ 주제 : 물류기업의 새로운 물류프로젝트 (◆ 사회: 안국산 연변대학교 교수) ① (중) 고명 길림성동북아 해상실크로드 사장 ② (러) 콘스탄틴 쉘벤코프 트랜스컨테이너 대표 ③ (몽) 수헤 엔흐바야르 몽골 해양청 사무관 ④ (한) 유재호, YJC 대표
토론	17:10-17:50	◆ 주제 : 북방물류 시장의 현실과 과제 ◆ 사회: 구정모 강원대학교 교수(한국경제학회장) ◆ 토론자 : 각 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
폐회	17:50-18:00	폐회